英스카우트연맹, 불교 활동 시작

맨체스터 불광산사서 불교스카우트 12월 3일 발족

매주 일요일 英불광산사서 운집
20명 가입, 명상 · 전인 교육 진행
무슬림스카우트 이은 두 번째



영국 최초 불교스카우트 '붓다스 라이트' 회원들이 발대식 후 밝게 웃고 있다.
사진출처=가디언지

영국에 최초의 불교 스카우트가 발족했다. 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 紙는 12월 2일 영국 맨체스터에 최초 불교 스카우트 '붓다스 라이트(Buddha's Light, 부처님의 빛)' 발족을 보도했다. 이 스카우트는 12월 3일(현지시간) 발족식을 갖고 첫 출범했다.

1991년 창설된 영국 스카우트연맹은 61만 8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스카우트 단체다.

이번에 발족한 불교스카우트 '붓다스 라이트'는 공식 영국 스카우트 연맹 소속 단체로 불교 명상을 비롯해 전인 교육 등을 수행한다.

가디언지는 "영국의 첫 공식 불교 단체로 영국 아이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붓다스 라이트'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지역 청년들에 개방된다. 붓다스라이트 스카우트 대원들은 매주 일요일 맨체스터 불광산사에서 법회 후 스카우트 활동을 이어간다.

'가디언'지는 보도시각인 12월 2일 당시 8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청년리더 20명이 가입을 했다고 전했다. 10년 전 말레이시아서 영국으로 이주해 온 문깃최(Munkit Choy) 맨체스터대 과학박사는 자녀를 스카우트에 가입시켰다.

최 교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지 불교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 가입하게 했다"며 "아이들이 단지 명상과 법문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전범위한 교육을 받고 오길 바란다. 예를 들어 불교적인 삶을 사는 법 등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 교수는 이어 "이번 불교스카우트 발족은 영국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우트는 1908년 영국 기병대 장교였던 육군중장 로버트 S. S 배든 포얼이 '보이스카우트'를 창설하며 처음 생겨났다. 보이스카우트는 야외생활의 기쁨을 강조하고 야영 · 수영 · 항해 · 등산 · 동굴탐험 및 카누 타기 등의 야외활동을 추구한다. 훈련 진행 과정에 따라 휘장과 뱃지가 수여되며, 일상적인 선행을 장려한다.

스카우트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국 스카우트는 이웃 종교에 관대한 편이다. 2006년에는 영국 내에서 최초로 무슬림 스카우트 단체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2012년에는 이웃종교 스카우트를 위한 헤드스카프 등 특수한 유니폼을 지급하기도 했다.

영국 스카우트연맹 측은 "우리의 스카우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인종과 종교를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교 스카우트 관계자는 "영국 아이들이 뱃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이해하고, 더 이상 '중국의 종교'나 '이상한 것'으로 보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모래로 만든 부처님, 마음은 금강석"

인도 불교 모래예술제 12월 2일부터 성황리에 개최



찬드라바가 해변에 조성된 부처님 모래예술
사진출처=The TIMES of INDIA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12월 2일 인도 힌두교 유적인 코나락 사원 근처의 찬드라바가 해변에 구축된 모래예술제를 보도했다.

2일 개막한 이번 모래예술제에는 독일과 멕시코, 가나와 싱가포르, 스페인, 러시아 등 9개국에서 총 70여 명이 참여해 5일간 모래 예술을 선보였다.

'Save the sea'로 붙여진 이번 모래예술제에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다. 두 번째 날에는 'Buddhist Circuit'을 주제로 불교 유적을 묘사하는 모래예술이 대거 선보였다.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측은 "예술가들은 인도와 해외에있는 다양한 불교 기념물과 우상에 자신의 모래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평화의 메시지를 예술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래 예술가 수다르산 파넥(Sudarsan Pattnaik)은 "해변에 쉽게 접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소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나락 사원 인근의 모리예술제는 2011년 시작됐다. 인도 오디샤(Odissa) 주 정부의 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수만명이 이를 즐기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인도관광청, 불교 인프라 개발 돌입

인도관광청은 최근 성지순례 루트 개발인 '루다 스탄 다산(Rad 100 crore) 구상'을 통해 네팔과 스리랑카 등을 연결하는 불교 인프라 개발에 나섰다. 이 인프라는 보드가야, 바이샬리, 라자기르, 쿠시나가르, 사르나트 및 스라바스티와 카필라바스투, 룸비니 등을 포함한다.

스탄 다산은 올해 9월 27일 세계 관광의 날에 출범한 인도 정부의 'Incredible India 2.0 캠페인' 연관돼 있다. 인도 문화관광부 장관인 마헤시 샤르마(Mahesh Sharma)는 "불교가 인도에서 유래했으며 8 개의 주요 불교 순례지 중 7개가 인도에 있다. 하지만 인도는 세계에서 불교 순례자의 1% 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마헤시 샤르마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불교와 관련한 관광객들로 붐비고 인도는 인프라와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 사업을 위해 세계은행이 1,800억 루피를 승인했다. 인도는 독창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있다"고 말했다. 마헤시 장관은 "불교 영감을 받은 지속 가능한 경제(BISE)라고 부를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YES Bank에서 중앙 및 주 정부의 정부와 불교 회로 개발에 종사하는 민간인들과 함께 BISE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태국, 불교식 반려동물 장례 '인기'

사원과 연계해 서비스 제공…"불교 포교에 긍정적 효과"



태국 내 반려동물의 장례식은 태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불교와 샤머니즘이 겹치면서 더욱 유행하고 있다. 불교적 믿음에 의해 공덕을 쌓는 것은 고통이 없는 열반에 이른다고 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일부 주인들은 원숭이들이 이러한 장례식을 통해 다음 생에서는 한 차원 높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태국 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는 장례문화가 호황을 맞고 있다.

방콕포스트, AFP 등 외신은 태국 내 반려동물의 불교식 장례 문화에 대해 보도했다.

한 스님이 방콕의 사원에서 분홍색 꽃으로 장식된 관에 안장된 시추견을 위해 염불을 하는 동안 견주(犬主)인 핌라차야씨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다. 핌라차야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올해로 6살이 된 강아지를 보내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달러(시추의 이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잘 가라고 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핌라차야씨가 지불한 비용은 600달러 정도이다.

태국 내에서는 핌라차야씨 같은 불교식 애완동물 장례식이 호황을 맞고 있다. 개, 고양이 뿐 아니라 심지어 도마뱀, 뱀, 원숭이까지 다양하다. 대회에서 우승한 유명한 싸움닭도 관에 안치되기도 한다. 장례비용은 600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바트(한화 약 34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태국의 반려동물 장례식은 태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불교와 샤머니즘이 겹치면서 더욱 유행하고 있다. 불교적 믿음에 의해 공덕을 쌓는 것은 고통이 없는 열반에 이른다고 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일부 주인들은 원숭이들이 이러한 장례식을 통해 다음 생에서는 한 차원 높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핌라차야씨는 "달러도 이번 생에서 사원에 감으로써 공덕을 쌓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라도 그녀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추세는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사치스러운 작별을 좋아한다.

하지만 방콕에서의 유행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방콕 내 대부분의 사찰은 반려동물을 위한 염불, 화장, 불교의식 등을 매일 치르고 있다.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치르거나 매장할 도심의 공간이 여의치 않자 장례업자들은 사원들과 연계하기도 한다.

티라왓 새한 씨는 4년 전 반려동물 가게를 운영하다 장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그는 '태국 반려동물 장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사원과 연계해 매달 20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태국 일부 불교계나 사원에서는 불교식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선 아직까지 비판적인 시선은 없다고 한다.

프라크루삼폴 스님은 "반려동물 장례를 통해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고, 종교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반려견 장례를 통해 사원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긍정적"이라며 "장례를 통해 주인들에게도 가장 고통스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방콕경찰, 승풍 실추 해결 나서



방콕 중앙 수사부는 성문제, 사기, 정치문제에 연루된 수도사들에 대해 전국적 단속을 시작한다.〈사진〉

'더스타'는 12월 4일 "태국이 불량한 수도승을 진압한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장 티터라 농안피탁(Thitiraj Nhongharnpitak)은 "현재 95명의 스님들이 불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또한 농안피탁은 "현재 검거된 스님들은 CSD가 조사중인 첫 번째 그룹이며 계속해서 수사망을 넓힐 것이다. 만약 스님들이 계율을 어기고 불교의 이미지에 흠집을 낸다면 그 누구도 단속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거된 스님들 중 35명의 스님들은 성 문제에 연루돼 있으며 24명의 스님들은 "초자연적 힘을 지녔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CIB'는 이번 단속이 2주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형 기자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학 및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등록대학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 천불사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KOREAN BUDDHIST EDUCATION CHEON BOOL SA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8-16 흑성산
TEL : (041) 557-3223 FAX : (041)556-1388

조실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문학박사 인환 대종사 주지겸학장 : 철학박사 석 인 경 (太山-印鏡)합장

시마

격조 높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안내문

1. 무속의 영점, 신점이 아닙니다.
2. 주역, 타로, 사주, 점성술 등의 역술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순수하게 영적인 에너지만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는 기묘한 점술입니다.
4. 고도의 집중력과 강력한 에너지장을 떠올려서 보고 듣기에 적중률이 뛰어납니다.
5. 본인 점술의 최대 장점은 질문자가 물었을 때 두리뭉실하지 않고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상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 담 료 : 10분 이내 7만원, 20분 이내 14만원 .....
10분 마다 7만원씩 분할결제 가능 (선불제)

상담가능시간 : 오후 1시 이후

연 락 처 : 010-9546-9797

시마(XIMA) 배상